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줍쌀 한 톨로 장가들기

나이 유아 (3~5세)

주제

- **목표** :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
- **주제** : 끈기, 지혜

핵심어 끈기, 지혜, 총각, 장가, 줍쌀, 쥐, 고양이, 말, 황소, 색시

한국문화

- **목표** :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어떤 모습인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
- **요소** : 전통혼례

한국어

- **목표** : 한국에서 주식으로 먹는 쌀의 종류와 세는 단위에 대해 말해 본다.
- **단어** : 줍쌀, 햅쌀, 보리쌀, 현미
- **표현** : 줍쌀 한 톨, 보리쌀 두 되, 햅쌀 한 말





인사 나누기

배꼽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좁쌀이 뭔지 알고 있나요?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좁쌀은 모래알처럼 크기가 아주 작은 곡식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고양이가 되더니 나중에는 커다란 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좁쌀 덕분에 총각이 장가를 갈 수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이제부터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열심히 일해서 마침내 멋진 집을 사게 되었지요.

‘집이 있으니 참 좋구나. 함께 살 색시도 있으면 좋겠는데…….’

총각은 색시감을 찾아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먹을 거라도 가져갈까 해서 쌀독을 열었더니 좁쌀 한 톨뿐이었지요.

‘할 수 없지. 좁쌀 한 톨이라도 가져가야지.’

총각은 좁쌀을 가지고 길을 나섰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머물게 되었어요.

“주인장, 이 좁쌀은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 주세요.”

‘이깟 좁쌀이 뭐라고 맡긴담?’

주막 주인은 좁쌀을 획 던져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막 주인은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지요.



이야기 들려주기

“어휴, 이를 어쩌나! 쥐가 좁쌀을 먹어 버렸는걸.”

“네? 그럼, 제 좁쌀을 먹은 쥐라도 주세요.”

주막 주인은 할 수 없이 쥐를 잡아서 총각에게 주었어요.

저녁이 되어 다른 마을에 도착한 총각은 또 주막에서 자기로 했어요.

“주인장, 이 쥐는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 주세요.”

“아휴, 징그러워!”

주막 주인은 쥐를 광에 가둬 버렸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총각이 쥐를 달라고 하자, 주막 주인은 광에 가 보았지요. 그런데 쥐는 보이지 않고 고양이만 야옹야옹 울고 있었어요.

“어쩌나,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은 것 같은데?”

“그럼, 제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라도 주세요.”



이야기 들려주기

총각은 고양이를 받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녀 보았지만 마땅한 색시를 찾을 수 없었지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오늘은 이 마을 주막에서 자야겠네.’

주막으로 들어간 총각은 주막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겼어요.

“주인장, 이 고양이는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 주세요.”

주막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에 두었지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이 고양이를 찾았어요.

“어쩌나, 우리 집 말이 고양이를 밟아 죽였다네. 대신 다른 고양이를 주면 안 될까?”

“다른 고양이는 필요 없어요. 제 고양이를 돌려주세요.”

“죽은 고양이를 살릴 수도 없고…….”

주막 주인이 어쩔 줄 몰라 찢찢맸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그럼, 제 고양이를 죽인 말이라도 주세요.”

총각의 말에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말을 주었지요. 그러자 총각은 말을 타고 더 먼 마을까지 갈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번에도 총각은 주막에서 자기로 했지요.

“주인장, 이 말은 소중한 것이니 잘 맡아 주세요.”

주막 주인은 총각의 말을 외양간에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말이 히잉우는 바람에 황소가 깜짝 놀라 뿔로 말을 들이받았어요. 말은 죽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주인이 총각에게 말했어요.

“어쩌지요? 우리 집 황소가 손님 말을 죽였어요. 대신 다른 말을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그럼, 제 말을 죽인 황소라도 주세요.”



이야기 들려주기

“뭐라고요? 그럼, 제 황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내놓으세요!”

총각의 큰 소리에 집주인이 나타나 물었어요.

“무슨 소란이냐?”

총각은 집주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지요.

“그러니까 좁쌀 하나로 황소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구나. 허허허!”

집주인이 웃으며 총각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 총각 참 똥똥하구나. 내 딸을 믿고 맡겨도 되겠군.’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자였던 집주인은 똑똑한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황소는 내 딸이 먹었으니 딸을 달라는 말이로구나! 허허허, 내 딸만 괜찮다면 우리 집 사위가 되어도 좋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딸도 빙그레 웃었어요.



이야기 들려주기

이렇게 해서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색시를 얻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총각은 색시를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났어요. 그때 갖고 갔던 쌀은 무엇이었나요?

네, 좁쌀이었지요. 한국에서는 쌀을 익혀서 만든 밥을 매일 먹어요.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 쌀을 얻는데, 좁쌀, 햅쌀, 찹쌀, 보리쌀 등 종류가 많아요. 이것으로 맛있는 밥이나, 다양한 떡도 만들어 먹지요.

여러분, 총각이 좁쌀 한 톨로 장가들었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의 전통 혼례를 본 적이 있나요? 옛날에는 신랑이 전통 혼례복을 입고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왔어요. 신부는 연지곤지를 찌고, 족두리를 쓰고 혼례를 치렀지요.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두고, 신랑은 '장가가다.', 신부는 '시집가다.'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혼례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좁쌀 한 톨로 부잣집 딸과 결혼하게 된 총각의 이야기였어요. 작은 좁쌀 한 톨이 쥐가 되고, 고양이가 되더니 말이 되고 결국 커다란 황소가 되었지요. 총각이 배짱과 끈기, 지혜를 가지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끈기와 지혜로 차근차근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